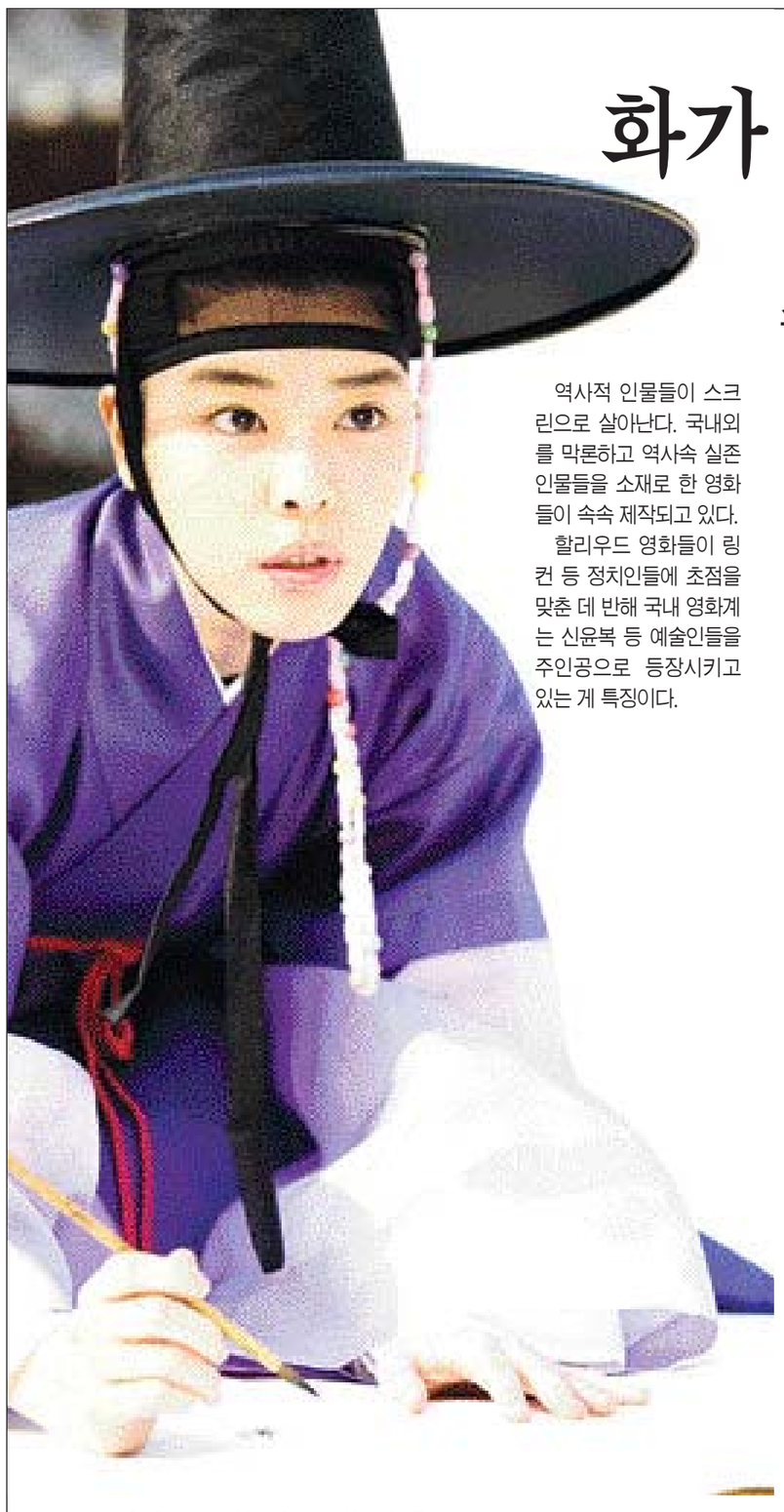
화가 신윤복 혁명가 체 게바라

스크린, 역사속 인물 그리기



영화 '미인도'에서 신윤복 역을 맡은 배우 김민선.

역사적 인물들이 스크린으로 살아난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역사속 실존 인물들을 소재로 한 영화들이 속속 제작되고 있다.

할리우드 영화들이 링컨 등 정치인들에 초점을 맞춘 데 반해 국내 영화계는 신윤복 등 예술인들을 주인공으로 등장시키고 있는 게 특징이다.

▲한국영화-예술가의 흔적을 좇다

실존 인물들을 주인공으로 한 영화는 지속적으로 제작돼 있다. 송혜교 주연의 '황진이', 한국 최초의 여류 비행사 박경원의 이야기를 그린 '청연', 설경구의 호연이 돋보인 '역도산', 화가 장승업을 주인공으로 한 '취화선' 등이 대표적이다.

최근 영화계의 러브콜을 받고 있는 인물은 조선시대 화가 신윤복과 김홍도다.

지난해 300만명의 관객을 동원한 '식객'의 전윤수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미인도'는 신윤복이 여자였다는 도발적 상상력에서 출발한 영화. 여자이면서 남자로 살아야했던 천재화가 신윤복과 제자인 그녀를 사랑한 김홍도, 그리고 그림 '미인도'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은밀하고 위험한 사랑을 그린 멜로 영화다.

주인공 신윤복 역으로는 '하류인생'의 김민선이 출연하며 영화 '밤과 낮'의 김영호가 김홍도로 함께 호흡을 맞춘다. 여기에 김홍도를 사랑하는 기생 '설화'역으로 추자현이 출연한다.

역시 김홍도와 신윤복이 등장하는 문근영과 박시양 주연의 드라마 '바람의 화원'이 이정명의 소설을 원작으로 삼은 데 반해 '미인도'는 창작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했다.

영화사 스튜디오 2.0이 제작 중인 '샤라쿠-조선밀정'은 단원 김홍도를 주인공으로 한 액션이다. 행적이 묘연했던 김홍도가 1년간 일본에 조선 밀정으로 건너가 '동양의 피카소'라 불리는 일본 천재화가 샤라쿠로 활동했다는 가설을 영화 '다빈치 코드'처럼 풀어낸다.

영화 '무사'의 조감독 출신인 박태춘 감독의 데뷔작으로 최근 4회 홍콩아시아영화투자포럼의 프로젝트 지원 라인업에 선정돼 시나리오 작업과 캐스팅을 마치는 대로 올 하반기 중 크랭크인할 예정이다.

김홍도와 샤라쿠 관련설은 이인화의 동명 중편소설을 각색, '기운생동'이라는 제목으로 지난 2004년 영화화 작업이 진행된 바 있다.

▲외국영화-정치가의 삶을 그리다

올해 칸영화제에서 가장 많은 찬사를 받았던 인물은 체 게바라였다.

올해로 탄생 80주년, 사망 41주기를 맞은 영원한 혁명가 체 게바라는 스티븐 소더버그 감독의 '체'를 통해 영상으로 되살아 났다. 체 게바라의 삶을 다룬 전기 영화인 '체'는 무려 4시간 28분짜리 대작. 쿠바 혁명 과정을 그린 1부 '아르헨티나인'과 볼리비아 게릴라 활동을 담은 2부 '체'로 나눠졌으며 체를 연기한 베니치오 델 토로는 남우주연상을 수상했다.

〈체 게바라〉

영화 '플래툰'과 'JFK' 등 정치색 짙은 영화를 만들어왔던 올리버 스톤은 현직 대통령 부시를 모델로 한 영화 'W'를 제작중이다. 평소 부시 대통령의 이라크 전쟁에 대해 반대 입장을 견지해온 올리버 스톤 감독이 어떤 시각으로 부시 일가를 그렸을 지 초미의 관심사다.

부시 대통령과 부인 로라 여사는 조시 브롤린과 엘리자베스 뱅크스가 맡았으며 미국 대통령 선거일 직전인 10월 17일 개봉 예정이다.

부시를 주인공으로 한 영화는 또 있다. 다큐멘터리 감독 마이클 무어는 이라크 전쟁을 둘러싼 부시 행정부의 정책을 음모론적 시각으로 풀어낸 '화씨 9.11'의 후속편 제작을 준비중이다.

미국인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중 한명인 링컨의 삶도 영화로 만들어진다. 흥행과 작품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온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은 역사학자 도리스 건스 굿윈의 링컨 전기물을 바탕으로 내년 초 영화제작에 들어간다. 주인공 링컨 역은 '쉰들러 리스트', '테이큰'의 리암 니슨이 맡았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주말 극장가

영화명	내 용
인크레더블 헐크	녹색 괴물 '헐크'가 주인공으로 출현하는 액션물로 에드워드 노튼이 주연을 맡았다. 15세 관람가.
롯데(광주), 메가박스, 무등, 콜롬버스(상무·하남), CGV(상무·첨단), 씨너스 전대, 하미, 엔터	
흑심모녀	왕공주 치매 할머니, 억척 터프 엄마, 철부지 딸에게 찾아온 완소 꽃돌이와 좌충우돌 동거(?)스토리. 12세 관람가.
롯데(광주), 메가박스, 콜롬버스(상무·하남), CGV(첨단), 씨너스 전대, 프리머스광주제일, 하미, 엔터	
해프닝	원인을 알 수 없는 미스터리 현상들이 뉴욕의 곳곳에서 발생되는 공포물. 18세 관람가.
롯데(광주), 메가박스, 무등, 콜롬버스(상무·하남), CGV(상무·첨단), 씨너스 전대, 프리머스광주제일, 하미, 엔터	
도화선	증거를 찾기 위해 홍코 범죄조직에 형사를 조직원으로 위장 투입시킨 이야기. 18세 관람가.
메가박스, 콜롬버스(상무·하남), CGV(첨단), 씨너스 전대, 하미	
섹스 앤더 시티	캐리, 사만다 등 드라마 속 네명의 주인공들이 4년 만에 영화로 모습을 드러냈다. 18세 이상 관람가.
롯데(광주), 메가박스, 무등, 콜롬버스(상무·하남), CGV(상무·첨단), 씨너스 전대, 프리머스 광주 제일, 하미	
걸스카우트	김선아, 나문희, 이경실 주연의 코믹 범죄 드라마. 곗돈을 지키기 위해 봉천 3동 그녀들이 뭉쳤다. 18세 이상 관람가.
롯데(광주), 메가박스, 무등, 콜롬버스(상무·하남), CGV(상무·첨단), 씨너스 전대, 프리머스 광주 제일, 하미, 엔터	
쿵푸 팬더	키 120㎝, 몸무게 160㎏에 이동속도 시속 30㎝의 팬더곰이 쿵푸의 달인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한다. 전체 관람가.
롯데(광주), 메가박스, 무등, 콜롬버스(상무·하남), CGV(상무·첨단), 프리머스 광주 제일, 하미, 씨너스 전대, 엔터	
디 아이	폭죽 사고로 시력을 잃었던 바이올리니스트가 각막이식 수술 후 이상한 일을 겪는다. 15세 이상 관람가.
메가박스, 콜롬버스(상무·하남), 프리머스 광주 제일, 하미	
라스베가스에서만 생길 수 있는 일	300만 달러를 차지 위해 조이(카메론 디아즈)와 잭(애쉬튼 커처)이 벌이는 기절초풍 동거 작전. 15세 이상 관람가.
메가박스, 무등 CGV(첨단), 하미, 엔터	
88분	범죄 심리학자 잭 그램(알 파치노)은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는 전화를 받게 된다. 15세 이상 관람가.
메가박스	
바디	의문의 지갑을 줍고 난 뒤부터 매일 밤 악몽과 환상에 시달리는 내용을 다룬 태국의 공포물. 15세 이상 관람가.
무등	
인디아나 존스 4 :크리스탈 해골의 왕국	인디아나 존스가 이번엔 전설의 크리스털 해골을 찾아 나선다. 12세 이상 관람가.
롯데(광주), 메가박스, 무등, 콜롬버스(상무·하남), CGV(상무·첨단), 씨너스 전대, 프리머스 광주 제일, 하미, 엔터	
겟썸	폭력에 살고, 폭력에 죽는 고등학생 이야기. 12세 이상 관람가.
엔터	

주목! 이 영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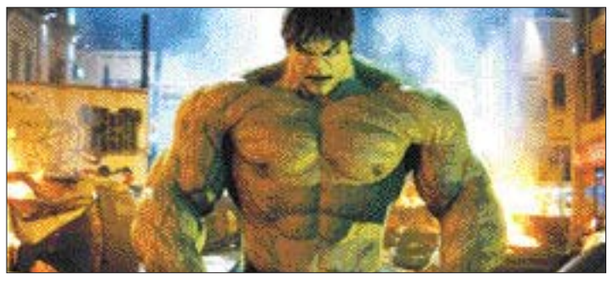
'인크레더블 헐크'

돌아온 헐크 뉴욕 구하기

마블 코믹스사가 출간한 만화를 원작으로 한 헐크 시리즈의 두번 째 이야기다. 이안 감독이 만들었던 2003년 작 '헐크'가 한 남자의 고뇌를 다룬 다소 무거운 작품이었던 데 비해 이번 영화는 로맨스와 액션이 강화된 게 특징이다.

미국 육군을 피해 브라질의 공장에서 일해온 브루스 박사는 분노를 통제하지 못하면 녹색 괴물 '헐크'로 변하는 자신을 치료하기 위해 연구를 거듭한다. 하지만 또 다시 미국 특수부대에 추격 당해 쫓기는 신세가 되고 옛 연인 엘리자베스 로스 박사 등의 도움으로 치료를 받지만 비극은 끝나지 않는다.

헐크의 혈청을 수혈받은 미 특수부대 팀장 블론스키가 괴물 어보미네이션으로 변해 사람들을 공격하게 된 것이다. 과학자로서 책임을 느낀 브루스는 헐크를 다시 불러내야만 하는 운명에 처하게 되는데….



연기파 배우 에드워드 노튼이 주인공 헐크 역을 맡았으며 리브 타일러, 윌리엄 허트가 함께 호흡을 맞춘다. 악당역으로는 팀 로스가 출연한다. 〈15세 이상 관람가〉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